



동시아 놀자 16

박성우 시인의 이상한 낱말 사전

박성우 시 · 서현 그림 | 140*210mm | 120쪽 | 값 12,000원 | 7세부터
978-89-491-8176-9(74800) / 978-89-491-0211-5(세트)
2022년 7월 22일 (주)비룡소 펴냄

신동엽문학상, 운동주점은작가상, 백석문학상 수상자 박성우 시인의 기발하고 신선한 낱말 뒤집기! 삐딱, 엉뚱, 낱말들 시선으로 본 유쾌한 세상

사람의 눈이 아닌 낱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멋지고 재미나고 신나는 일이었어요.
내가 느껴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흥미롭고 신비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 박성우(시인의 말 中)

『아홉 살 마음 사전』, 『아홉 살 함께 사전』, 『아홉 살 느낌 사전』, 『아홉 살 내 사전』 등 감정 형태 사전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어린이책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한 박성우 시인이 이번에는 독특한 형태의 시집, 『박성우 시인의 이상한 낱말 사전』을 (주)비룡소에서 출간했다. 각종 낱말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 시집은, 온통 사람 중심인 이 세상에 유쾌하고 신선한 울림을 선사한다. 의자와 침대, 고양이와 방아깨비, 호수와 바람 등 다양한 사물과 동물, 자연이 바라본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우리가 미처 못 보던 것까지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허를 찌르는 통쾌함, 눈이 번쩍 뜨이는 상상력, 배꼽 잡고 깔깔 웃는 유머까지 두루두루 갖췄다. 여기에 『눈물바다』, 『간질간질』 등 독특하고 유쾌한 그림책으로 사랑받는 서현 작가의 네 컷 만화 삽화가 더해져 시를 더욱 확장해 준다. 앞서 호홉 맞췄던 『박성우 시인의 첫 말 잇기 동시집』, 『박성우 시인의 끝말잇기 동시집』에 이은 세 번째 작업이다.

• 재치 만점 시와 유쾌한 4컷 만화의 찰떡궁합!

말맛은 물론 곱씹을수록 재미난 상상으로 이어지는 짧은 시들은 4컷 만화와 만나 의미가 더욱 확장된다. 서로의 공간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시와 그림이 하나로 움직이는 무척 독특한 구성이다.

가로

분명 나는 '가로'인데
누워 있다 일어나니 '세로'라 부르네
-「가로」전문



시를 먼저 읽고 그림을 보면, 무릎을 탁, 치며 깔깔 웃게 된다. 반대로 그림을 먼저 보고 시를 읽어도 이야기를 유추하며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가로가 생각하는 가로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시를 읽고 나면 재치 넘치는 내용에 독자들은 또 다른 생각과 상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다.

또 다른 시 「대벌레」는 시를 읽고 바로 옆에 연출된 숨은그림찾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와 놀이가 재미나게 연출되어 숲에 꼭꼭 숨어 있는 대벌레를 찾아 해방 시켜 주는 재미까지 쏠쏠하다. 아이들의 시 읽기를 소극적으로 끝내는 게 아닌, 적극적인 놀이 활동 영역으로 끌어당기기도 한다.

대벌레

숨바꼭질 시작한 지가 언젠데
왜 나를 찾지 못하는 거지?
(중략)
나 언제쯤이나
이 대 숲에서 나갈 수 있는 거지?
-「대벌레」중



쉽게 보아 넘기는 작은 사물들 또한 이 시집에서는 당당한 주인공으로 입을 연다. 양말, 내복, 젓가락, 축구공, 가위, 형광등, 시계 등 주변에 늘 덩덤하게 있을 법한 사물들이 매우 입체적으로 살아나 제 목소리를 낸다. 짝을 잃어 슬픈 양말과 사계절을 어찌 보내고 있는지 알려 주는 내복, 뺑 하늘로 날아 올라가 유리창에 부딪히기 직전의 공포감을 묘사한 축구공, 늦게까지 켜져 있어야 하는 운명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형광등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온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풍요롭게 느껴진다. 재미난 발상으로 아이들에게 신나는 시적 상상의 문을 열어 주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한다.

• 깔깔 웃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나도 시인!

운율감 있는 말맛과 더불어 이미지가 연상되는 시들은 유머는 물론 자연스레 시를 따라 짓고 싶은 마음마저 들게 한다. 쉬운 단어, 엉뚱한 상황, 재치 있는 발상,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재 등은 아이들도 쉽게 시에 대해 접근할 수도록 유도한다. 특히 시를 이루는 주요한 요소인 음율과 심상 그리고 재치 있는

주제까지 담고 있어 아이들이 이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시의 원리마저 음미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출간된 『박성우 시인의 첫말 잇기 동시집』에서는 말 잇기를 통해 우리말의 재미와 멋을 배울 수 있고, 『박성우 시인의 끝말잇기 동시집』에서는 끝말잇기 놀이 형식으로 아이들의 풍부한 어휘 확장을 돕는다.



• 작가 소개

박성우

200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200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집 『거미』, 『가쁜한 잠』, 『자두나무 정류장』, 『웃는 연습』, 동시집 『불량 꽃게』, 『우리 집 한 바퀴』, 『동물 학교 한 바퀴』, 『박성우 시인의 첫 말 잇기 동시집』 청소년시집 『난 빨강』, 『사과가 필요해』를 펴냈습니다. 산문집으로는 『박성우 시인의 창문 엮서』, 어린이책 『아홉 살 마음 사진』, 『아홉 살 함께 사진』, 『아홉 살 느낌 사진』, 『아홉 살 내 사진』 그리고 그림책 『암흑 식당』이 있습니다. 신동엽문학상, 윤동주젊은작가상, 백석문학상 등을 받았습니다.

서현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유머를 찾아서 머릿속을 헤매는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렸고, 쓰고 그린 책으로는 『눈물바다』, 『커졌다!』, 『간질간질』이 있습니다.

편집장 박지은 02)515-2000(내선번호 317) / allball7@bir.co.kr

편집 정은정 02)515-2000(내선번호 322) / aimat@bir.co.kr



13자리 바코드 : 9788949181769((74800)

도서명 : 박성우 시인의 이상한 낱말 사전

인증 유형 :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명 : 어린이용 환양장 도서

제조지명 : (주)빅몽소

제조국 : 대한민국

사용연령 : 3세 이상

주의 사항 : 종이에 손이 베이거나 모서리에 다치지 않게 주의하세요.